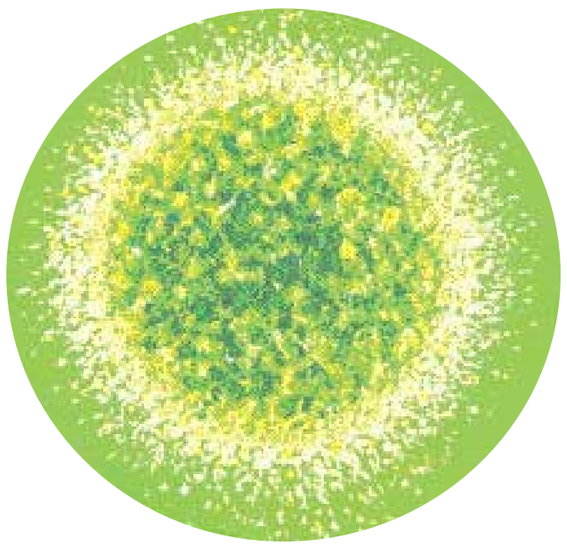
"파꽃은 그림 속 내 영혼"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만난 파꽃을 통해 영혼이 향기로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도 들녘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파꽃. 파꽃은 질곡이 있는 꽃이다. 모진 겨울을 버티고 이듬해 봄에야 꽃을 피우기 때문에 투박하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날 무리지어 "그동안 잘 버텨왔다"며 서로 꽃잎을 쓰다듬는 모습은 진한 감동을 준다.

오는 16~27일 서울 종로구 진화랑에서 개인전을 여는 '파꽃의 화가' 최향(58)씨가 전해주는 파꽃의 아름다움이다.



최향씨 16~27일 서울 진화랑서 개인전
일본 등 유명 화랑 러브콜…뒤늦게 주목
"나이 50에 무안 들녘에서 희망 찾았어요"

최향씨는 지천명의 나이에 파꽃 연작을 새롭게 선보여 서울과 일본 등지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작가이다. 20~30대부터 이름을 알리는 요즘 젊은 작가들과는 달리 50대 후반에야 서울 진화랑, 일본 시로다갤러리 등 유명 화랑에서 러브콜을 받는 등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의 파꽃 연작이 아름다운 것은 그녀의 예술 인생에도 굴곡이 많았기 때문이다.

홍익대 미술학과를 나온 뒤 광주에서 작품 활동을 했던 그녀는 늘 이방인이었다. 광주라는 지역적인 벽 때문에 중앙 화단 진출은 멀기만 했고, 광주에서도 타지역에서 공부한 그녀를 반기지 않았다.

금방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어느 순간 멀어져 가버리는 신기루 같던 작업에 환멸을 느낀 지난 2000년 어느 날, 무작정 떠난 무안 들녘에서 파꽃에 사로잡혔다.

"어디에도 낄 수 없었던 내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내 영혼의 모든 상처가 따뜻하게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캔버스 가득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파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여러 번 물감을 찍어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꽃술의 도드라진 질감을 살렸고 연두, 노랑, 보라, 분홍, 파랑 등의 감각적인 빛깔로 화면을 채웠다.

"나한테 떳떳한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나를 닮은 파꽃을 찾아내 행복합니다. 꽃만 그리는 단순한 주제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변화와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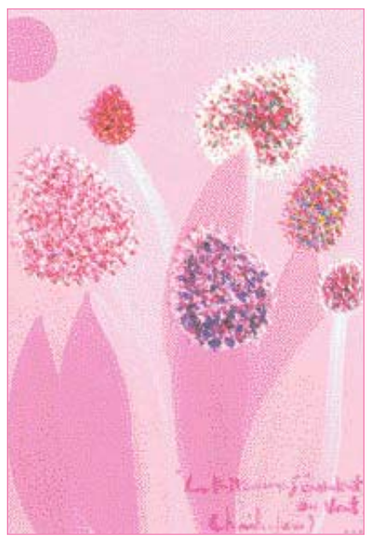
그녀는 이번 전시를 위해 또 한 번의 변신을 시도했다. 화면의 화려함을 줄이고, 거친 질감을 살려 날 것 그대로의 파꽃을 형상화했다.

과거 캔버스에 알록달록한 색으로 배경을 먼저 칠했던 기법에서 벗어나 밋밋한 색깔의 캔버스 천을 그대로 배경으로 썼다. 색을 빼니, 더욱 절실한 파꽃의 느낌도 살아났다. 또 덧칠된 꽃술은 더욱 도드라져 입체감을 주고, 파꽃 한 송이를 추상적으로 그려낸 작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미술평론가 김영호(중앙대 교수)씨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고독한 삶의 얼개를 끝없이 자극하는 한 편의 서정시다"고 평했다.

최씨는 브라질 상파울로 예술원, 뉴욕 한국 현대미술 초대전을 가졌으며 헝가리 기오르 비엔날레 한국전, 한·일국제현대미술제 등에도 출품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파꽃은 … 바람에 흩날리고'

오는 16~27일 서울 진화랑에서 개인전을 여는 서양화가 최향씨가 9일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북한 어린이 돕기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5년만에 재개…15일 올 첫 공연
소리꾼 윤진철·작곡가 김현옥·화가 주홍씨 등 참여

가수 김원중씨는 지난 2004년부터 24개월 동안 '김원중의 달거리'라는 이름으로 매달 한 차례씩 관객들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음악회를 열어왔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서로 품앗이하며 60여명의 출연진과 스태프가 만들어낸 음악회에서 들려준 김씨의 노래는 세상사에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던 이들의 따뜻한 마음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또 다른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의 노래에 감동한 관객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은 평양 대동강 인근에 '북한어린이영양빵공장'을 만들게 되는 기폭제가 됐고, 지금 공장에서는 매일 하루 1천여개의 빵을 만들고 있다. 김씨는 현재 북녘어린이 영양빵공장 홍보대사, 북한 자전거 보내기 홍보대사 등을 맡아 활동중이다.

김씨가 5년만에 다시 마이크 앞에 선다. '빵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라는 이름으로 무대는 오는 15일 첫공연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매달 셋째주 월요일(오후 7시30분)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옛 KBS광주방송총국) 영상관에서 열린다.

2010 달거리 공연에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힘을 보탰다. 이들은 직접 무대에 서거나 프로그래머가 돼 자신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소리꾼 윤진철씨는 '명창 윤진철의 소리 마실'을 진행하고, 작곡가 김현옥씨는 클래식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화가 주홍씨는 퍼포먼스를, 그리고 지역에서 노래하는 '악동들'(장광산·이현미·안휴·오봉렬)은 관객과 함께 노래부르기 코너를 진행한다. 또 화가 한희원씨는 무대 디자인과 제작을 맡았다.

'새싹은 지구를 뚫고 나온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번째 공연에는 시인 김용택씨가 초대 손님으로 나온다. 화가 주홍씨는 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후 '흐르는 물에 봄비 내리듯', '무등산 친구' 등 매월 다양한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따로 티켓을 팔지 않는 대신 공연 관람 후 모금함에 작은 정성을 넣으면 된다. 수익금은 북한어린이 영양빵공장을 돕는 데 쓰인다.

http : //www.kimwonjoong.com 문의 062-654-36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인협 향토어 살려쓰기 운동 결실
'오메! 단풍 들것네' 출간

광주문인협회(회장 오덕렬)가 지난해 '작은 문화운동'으로 펼친 향토어 살려쓰기 운동의 결실을 엮은 작품집 '오메! 단풍 들것네'가 출간됐다.

작품집은 회원들이 향토어를 살려쓴 작품을 한데 모은 것으로 책의 제호로 쓰인 김영랑의 시처럼 남도토박이말의 맛과 멋을 살린 시, 시조, 수필, 소설 60여편을 묶었다. 또 작품집에는 향토어 살려쓰기 방안을 연구한 이돈주(전남대 명예교수)씨의 '전남 방언의 특징과 연구'와 남영신(국어문화운동본부 이사장)씨의 '지역어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는 논단도 함께 실렸다.

이밖에 투박하지만 넉넉한 남도 토박이말의 정감을 잘 살려 쓴 이흥규(문학동인 죽란시사회 회장)씨의 소설 '감샘의 전설'과 정대연(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씨의 동화 '웃어쌈시롱'과 희곡작가 한옥근(조선대 국교과 교수)씨의 희곡 '꼴뚜기 행장기' 등 도 눈에 띈다.

오덕렬 회장은 머리말을 통해 "향토에서 느끼는 미묘한 정감, 감칠맛 나는 남도의 서정을 작품에 살려 언어생활이 풍성해지고 문학작품을 살찌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227-081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악전수관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소리꾼 주현주씨 초청 공연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이 소리꾼 주현주씨를 초청했다.

오는 11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 주씨는 미산제 '수궁가' 완창 무대를 선보인다. 미산제는 미산 박초월 선생의 소리를 일컫는다.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한 주씨는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일반부 우수상,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고수 일반부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또 2007 전주세계소리축제 대학창극제 '춘향전'에서 춘향 역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수는 박준호씨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